

#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용음악 창작의 확장 가능성 연구 - ‘Chat GPT’와 ‘Suno’를 중심으로 -

남승호,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nshmir@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practical music creation using generative AI

Seung-Ho Nam,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실용음악 창작자의 관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 ChatGPT와 Suno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들이 창작 과정 전반에 어떻게 개입하고 보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창작자가 겪는 결행력 부족, 연주 및 편곡 역량의 한계를 중심으로, GPT를 통한 아이디어 확장과 Suno를 통한 사운드 구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GPT와 Suno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 도출부터 음악 완성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AI는 실용음악 창작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실용음악 교육과 창작자의 정체성 재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기술 중심의 AI 활용이 아닌, 창작자 중심의 체험을 바탕으로 실용음악 창작 환경에서의 AI 접목 가능성을 제안 한다.

## 1. 서 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격한 발전은 예술 창작 영역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실용음악 분야에서는 작사, 작곡, 편곡 등 창작의 여러 단계에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창작자들이 AI를 단순 자동화 도구로 오해하거나, 자신과의 창작적 연결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실제 창작자인 연구자가 ChatGPT와 Suno를 활용해 작업한 경험을 토대로, AI가 실용음악 창작에서 어떻게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창의력 증폭 도구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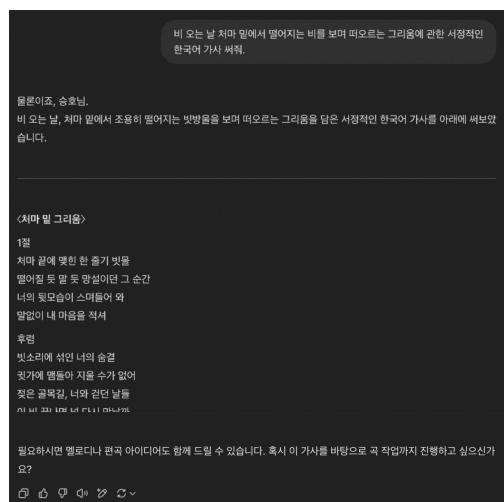
## 2. 본 론

### 2.1. 생성형 AI 기술 개요

Chat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OpenAI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로, 아이디어 발상, 가사 창작, 콘셉트 구상 등에서 텍스트 기반 창작 보조 도구로 활용됨[1]. Suno: 음악 생성 특화 플랫폼. 프롬프트 입력으로 멜로디, 편곡, 스타일이 완성된 음악을 자동 생성, 다양한 장르에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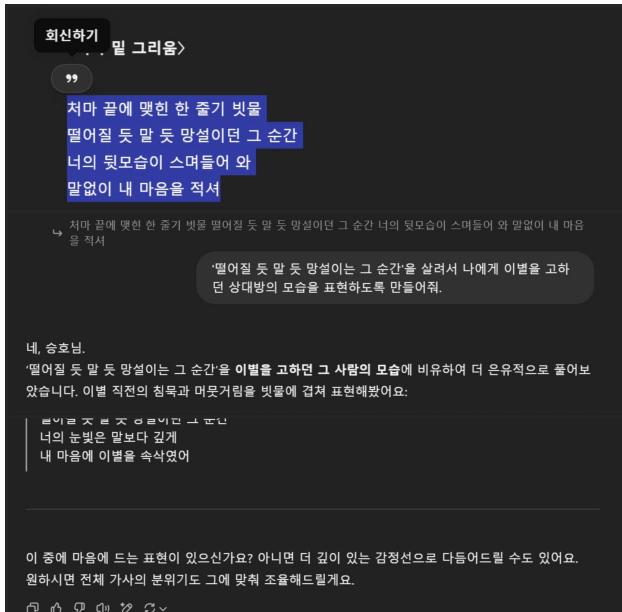
### 2.2. GPT를 활용한 아이디어 확장 및 작사 실험

창작자는 곡 작업을 할 때 종종 ‘가사에 담고 싶은 감정이나 주제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특히 반복되는 표현이나 혼한 감정 서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GPT는 감성적 표현을 구체화하고 문장 흐름을 설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한다.



[그림 1] 컨셉의 설명 및 질문에 결과 및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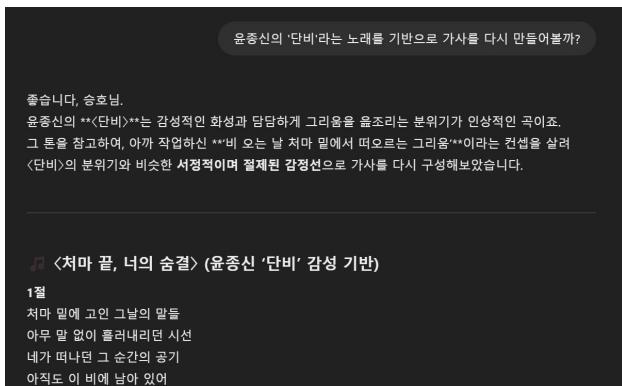
창작자는 곡 작업 시,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빗물’을 주제로 한 감성적인 가사를 구성하고자 할 때 GPT에게 정서적·이미지 중심 키워드를 입력하였다. 위 [그림 1]은 GPT가 제시한 가사 초안과 그에 이어지는 창작 아이디어 제안의 예시이다.



[그림 2] '회신하기' 기능을 통한 부분적 수정의 예

또한 GPT는 창작자가 생성한 가사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문장 단위 피드백을 주거나, 부분적 수정을 통한 스타일, 분위기 변화 제안도 가능하다. 이는 마치 공동 작사가가 초안을 받아보고 “이 문장을 살리되, 이런 식으로 더 은유적으로 바꿔볼까?” 하는 식의 협업적 사고 흐름을 유도한다.

[그림 2]는 앞서 생성한 가사 중 일부를 GPT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별을 고하던 그 순간을 더 은유적으로 바꿔줘’라는 요청을 통해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GPT는 감정의 선명도와 묘사를 조절해 제안하며, 이후 전체 분위기에 맞춰 조율해 줄 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그림 3] 구체적인 레퍼런스 제시의 예

또한, 특정 곡이나 가수의 스타일을 참고 레퍼런스로 삼아 새로운 가사를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기준에 감명 깊게 들었던 음악의 분위기나 감정선을 GPT에게 전달해, 그와 유사한 감정 구조를 갖는 ‘나만의 새로운 가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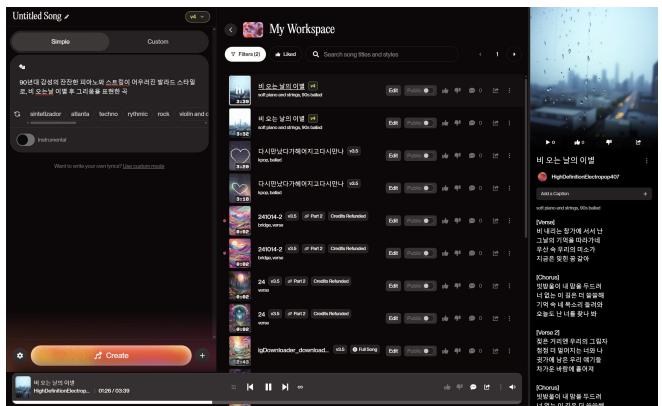
[그림 3]은 윤종신의 '단비'를 감정적 래퍼런스로 삼아, '비 오는 날'이라는 동일 주제 속에서 서정적이며 절제된 감정선을 담아낸 예시이다[3].

GPT는 해당 래퍼런스 곡의 정서적 결을 분석한 뒤, 새로 제시된 주제에 맞춰 감정의 톤을 유지하며 재구성된 가사를 제안하며, 창작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도달했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GPT가 단순 창작 도구가 아닌 '감정 해석 파트너'로 기능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창작자가 지향하는 음악의 분위기나 정서를 어떻게 언어로 읊기는지를 배우는 과정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활용 사례가 될 것이다.

### 2.3 Suno의 Simple Mode를 활용한 음원생성[2]

실용음악 창작자는 종종 머릿속에는 분명히 떠오르는 사운드가 있지만, 실제 연주나 편곡 능력, 혹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un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악 생성 특화 AI 플랫폼으로,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특정 장르나 스타일의 완성도 있는 음원을 자동 생성해준다.



#### [그림 4] Suno를 활용한 프롬프트 생성의 예

[그림 4]는 Suno의 인터페이스에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음악을 생성한 작업 공간의 예시이다.

좌측 상단에는 창작자가 원하는 텍스트 기반의 구체적인 스타일, 분위기가 입력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생성된 음원들의 리스트가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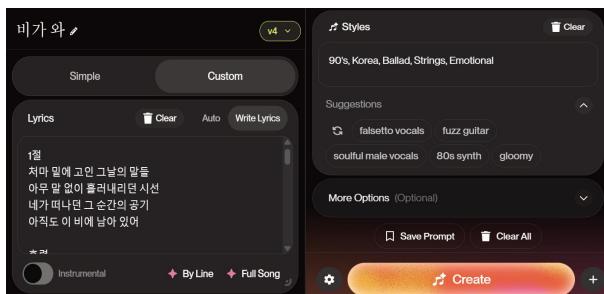
이처럼 단순한 텍스트 한 줄로도 Suno는 멜로디, 편곡, 악기 구성까지 자동으로 설계되어 음악을 생성한다. 이 결과물은

DAW(Logic Pro, Cubase, Ableton 등)로 불러와 직접 편집하거나, GPT로 만든 가사와 결합하여 실제 완성곡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2.4 Suno의 Custom Mode를 활용하여 GPT와 연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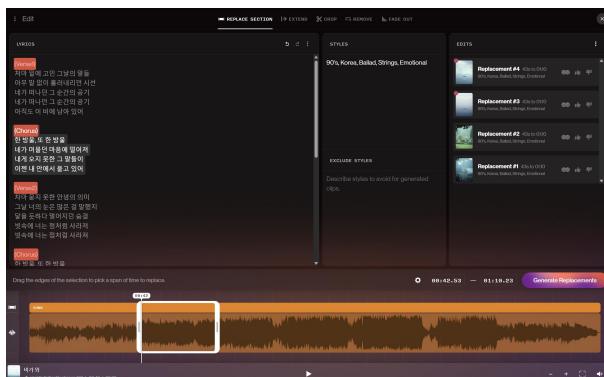
단순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음원을 생성하지만, 곡의 컨셉만을 가지고 완전히 랜덤한 생성을 하다 보면 창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Custom mode에서는 창작자가 직접 곡의 구성과 가사를 입력하고, 곡에 들어가는 악기 구성, 장르, 분위기, 지역등의 정보들을 세세하게 입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음원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림 5] Suno의 Custom Mode를 활용한 프롬프트 생성의 예

앞서 GPT에서 생성한 가사를 Custom mode에 [그림 5]와 같이 적용해서 생성된 음원은 Simple mode에 비해 훨씬 더 의도에 가깝게 생성되었다.



[그림 6] 생성된 음원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는 모습

이뿐만 아니라, 2025년 4월 기준으로 Suno에서는 생성된 음원이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림 6]처럼 그 부분만 지정해서 가사 및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2.5 GPT와 Suno를 결합한 창작 흐름의 실제 적용

실용음악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콘텐츠 생성이 아니라, 창작자가 가진 감정, 메시지, 콘셉트를 ‘끌까지’ 실현해내는 ‘과정’이다.

GPT와 Suno는 각각의 특성을 통해 창작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완하며, 두 도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창작 과정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GPT 단계: 아이디어 발굴 및 구조 구상.

주제 설정, 콘셉트 도출 → 가사 초안 생성 → 감정 조율, 문체 변형 → 참고 레퍼런스 기반의 스타일 제안 가능

② Suno Custom Mode: 창작자의 의도에 맞춘 세밀한 구현. GPT가 생성한 가사 직접 입력 → 악기, 템포, 구조, 지역 등 구체적 설정 및 특정 감성이나 사운드를 더욱 정밀하게 재현 가능.

③ 최종 결합 및 창작 완성.

생성한 음원을 DAW로 불러와 직접 편곡, 악기, 보컬 녹음 진행하거나, GPT를 통해 믹스를 위한 전문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은 곡 발표, 공연, 과제, 교육 결과물로 활용 가능하다.

## 3. 결론

이처럼 GPT와 Suno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는 단순 반복이나 스타일 복제의 도구가 아닌, 창작자의 상상력과 감정을 현실화시키는 ‘창작 증폭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4].

이는 실용음악의 창작 과정에서 기획 → 감성 표현 → 구현 → 편곡 → 결과물 완성이라는 모든 단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풍부하지만, 결행력 부족, 연주 기술의 한계, 반복적인 창작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AI는 강력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향후 실용음악 교육에서도 이러한 AI 도구의 활용 능력은 새로운 창작 역량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협업 사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1] OpenAI, [\\*ChatGPT Technical Report\\*](#), 2023.
- [2] Suno.ai 공식 웹사이트, <https://suno.ai>
- [3] 윤종신. 앨범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指針書\)’](#) 2000.
- [4] 박현용 (2024). 「생성형 AI의 등장과 음악 창작 환경의 변화, 미래음악교육연구, 9(1), 83-114.